

기초체력 키워 신규사업 몸집불린다... 구독경제도 눈독

카드, 飛上 2020 전략

(8) 하나카드

작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498억 디지털채널 비중 늘리고 콜라보 확대 구독경제부 신설, 자체 서비스 개발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하나카드는 올해 경영전략으로 '기초체력 강화'와 '신규 수익원 창출'을 꼽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괄목할 만한 수준의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하나카드는 498억원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수익이 37.8% 줄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영향을 미쳐 피하지 못한 탓이다. 올해 하나카드는 영업 전반의 프로세스 효율화와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매진해 지난해의 부진을 딛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기초체력 ↑

하나카드는 우선 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인력·상품 관련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신용카드 본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나카드는 디지털 채널의 비중을 늘리고, 각 기업과의 콜라보를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모바

일만으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원큐페이(1Q Pay) 해외 NFC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제 브랜드사인 비자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마스터카드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유니온페이와 기술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의 제휴도 강화한다. 하나카드는 올해 2~3월 중으로 간편결제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는 토스와 손을 잡고 PLCC 형태 제휴카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카드 운영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도 구상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카드는 기존 업무를



하나카드는 지난 8월 비자코리아와 '해외 모바일 터치 결제 서비스'를 론칭했다. (왼쪽부터)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과 파트너인 비자코리아 사장. /하나카드

효율화하고 정보기술(IT) 투자도 강화해 기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한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하나카드는 내부로부터의 디지털화를 이뤄내기 위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정산 및 운영업무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내부 구성원의 디지털 마인드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HDU(Hana Digital University)를 시행한다.

HDU(Hana Digital University) 프로그램은 직원을 선발해 빅데이터 및 디지털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자 이노베이션 센터(Innovation Center)와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모델 및 디

지털 서비스를 실제 개발·업무에 적용하는 성과도 나타낸 바 있다. 디지털 지식의 기반이 되는 코딩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딩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규 사업 지속확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카드는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해외 이용 손님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나카드의 대표적인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인 '글로벌 머스트 해브(GLOBAL MUST HAVE, GMH)'는 지난해 서비스 개시 이후 하나카드 손님들의 입소문을 통해 꾸준히 이용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37개국 80여개사와의 파트너십 제휴 체결을 통해 차별화된 해외 특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달 홈페이지 리뉴얼 후에는 해외 이용 손님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소비 트렌드인 구독경제를 비롯한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한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올 초 사내에 '구독경제부'를 신설하고 구독경제와 관련한 하나카드 이벤트와 자체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어 하나카드는 포인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서비스를 2~3월 개시할 계획이다. 기존 체크카드 발급 방식은 계좌를 연동해 카드를 발급했으나, 이제부터는 계좌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체크카드 출금계좌를 연결해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외국인·미성년자 등 고객들이 간편하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나카드는 우선 하나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하나멤버스에 가입한 고객 누구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거래 시 하나머니가 차감돼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잔여포인트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금융위 "RP거래시 현금성자산 보유해야"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 부과방안

오는 7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시 매도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규정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익일물 RP(거래만기 1일) 거래비중이 전체의 90%를 넘어서는 등 편중 현상이 심해 매일 대규모 차환 압력을 받고 있다며,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제도개선 발표당시 현금성 자산의 예

시로 든 현금, 예적금(외화예금·MMD A 등),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도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사·증권 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수시입출식 투자일임상품(MMT·MMW)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달러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를 현금화 자산으로 인정한다. 거래만기에 따른 현금성 자산 보유의무 비율도 차등화한다.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 뿌리 뽑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작년 8월 탈세 의심 국세청 통보 탈루 혐의 확인시 세무조사 착수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법 위반, 청약 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정부가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실거래법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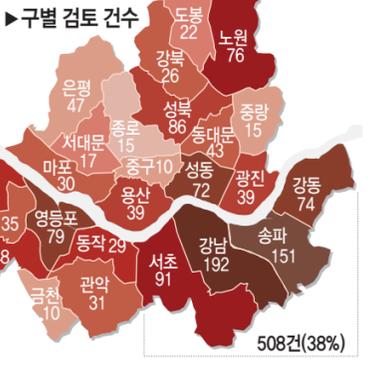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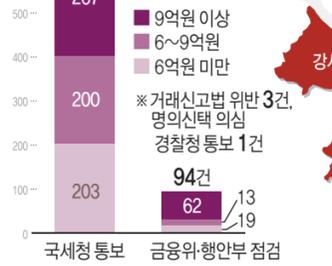
국토부는 우선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 사례를 분류,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하는 등 전담 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1차로 지난해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 중 가족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대상은 전세 계약 형식을 빌려

서울 주택 거래 2차 조사 결과

* 2차: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총 1,333건 검토



* 1차: 작년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역 1,536건 선별, 그중 991건 검토,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연립뉴스 자료/국토교통부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양도했거나, 차입 관련 증명 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와 금감위,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매법인이 상호금융 조합에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샀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유

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이 경우 대출 약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자식이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부모가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다면 부모가 편법으로 자식에게 집 구매 자금을 증여했는지 국세청의 정밀 검증을 받게 된다. 또 집을 살 때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도 차용증 등을 쓰지 않으면 편법 증여로 분류돼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집에 같이 살면서 부모에게 전세를 주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는 탈세 의심사례로 걸러졌는데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불법 거래 의심사례는 국세청이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KKR평택물류센터, 페블스톤자산운용에 매각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투자해 지난해 준공된 경기도 평택 'BLK평택물류센터'의 소유권이 국내 부동산 전문 투자운용사로 넘어갔다.

KKR은 최근 BLK평택물류센터를 페블스톤자산운용에 매각했다고 4일 밝혔다. BLK평택물류센터는 작년 초 준공된 평택항의 물류 시설로 연면적 약 13만6

천500㎡ 규모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비롯한 물류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다.

황태웅 페블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BLK평택물류센터 인수가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물류센터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할 기업들을 모두 지원해 한국 시장에서 특색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